



# CONTENTS

2023 '기후변화와 재난안전교육' NIE 패스포트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01. 기후변화	08
02. 기후변화와 국가 위기	10
03.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12
04. 극지방의 사라지는 얼음	16
05. 기록적인 산불	18
06. 목마른 대지	20
07. 불타는 물의 도시, 판타날 습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22
08.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	24
09. 재난은 남의 일? 재난 복구에 전 세계 손잡아요	26
10.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친환경 실천!	28
11.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고요?	30
1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국제사회 어깨가 무거워요	32

VISA (확인서)	35
------------	----

## 일러두기

### '기후변화와 재난안전교육' NIE 패스포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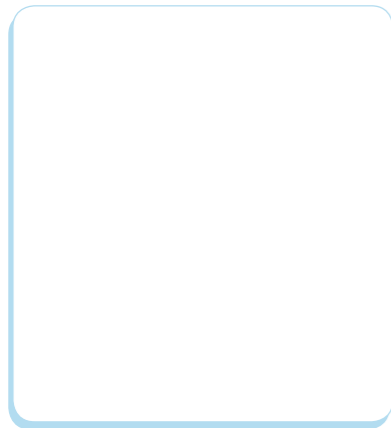
- ✓ 2023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NIE 패스포트는 어린이·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3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 알림

2023 '기후변화와 재난안전교육'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 |  |  |   |   |
|--|--|---|---|
| <b>경향신문</b><br>https://www.khan.co.kr                  | <b>국민일보</b><br>https://www.kmib.co.kr        | <b>내일신문</b><br>https://www.naeil.com/     | <b>대한경제</b><br>https://www.dnews.co.kr            |
| <b>동아일보</b><br>https://www.donga.com                   | <b>매일경제</b><br>https://www.mk.co.kr          | <b>머니투데이</b><br>https://www.mt.co.kr      | <b>문화일보</b><br>https://www.munhwa.com             |
| <b>브릿지경제</b><br>https://www.viva100.com                | <b>서울경제</b><br>https://www.sedaily.com       | <b>서울신문</b><br>https://www.seoul.co.kr    | <b>세계일보</b><br>https://www.segye.com              |
| <b>스포츠서울</b><br>https://www.sportsseoul.com            | <b>스포츠조선</b><br>https://www.sportschosun.com | <b>아시아경제</b><br>https://www.asiae.co.kr   | <b>아주경제</b><br>https://www.ajunews.com            |
| <b>이데일리</b><br>https://www.edaily.co.kr                | <b>전자신문</b><br>https://www.etnews.com        | <b>조선일보</b><br>https://www.chosun.com     | <b>The JoongAng</b><br>https://www.joongang.co.kr |
| <b>The Korea Times</b><br>https://www.koreatimes.co.kr | <b>한겨레</b><br>https://www.hani.co.kr         | <b>한국경제</b><br>https://www.hankyung.com   | <b>한국일보</b><br>https://www.hankookilbo.com        |
| <b>헤럴드경제</b><br>http://biz.heraldcorp.com              | <b>news1 KOREA</b><br>https://www.news1.kr   | <b>연합뉴스</b><br>https://www.yna.co.kr      | <b>강원도민일보</b><br>https://www.kado.net             |
| <b>江原日報</b><br>https://www.kwnews.co.kr                | <b>경기일보</b><br>https://www.kyeonggi.com      | <b>경남신문</b><br>https://www.knnews.co.kr   | <b>경남일보</b><br>https://www.gnnews.co.kr           |
| <b>경북도민일보</b><br>https://www.hidomin.com               | <b>경북매일</b><br>https://www.kbmaeil.com       | <b>경북일보</b><br>https://www.kyongbuk.co.kr | <b>경상일보</b><br>https://www.ksilbo.co.kr           |
| <b>경인일보</b><br>http://www.kyeongin.com                 | <b>광주일보</b><br>http://www.kwangju.co.kr      | <b>국제신문</b><br>https://www.kookje.co.kr   | <b>대구일보</b><br>https://www.idaegu.com             |
| <b>대전일보</b><br>https://www.daejonilbo.com              | <b>每日新聞</b><br>https://news.imaeil.com       | <b>부산일보</b><br>https://www.busan.com      | <b>영남일보</b><br>https://www.yeongnam.com           |
| <b>울산매일</b><br>https://www.iusm.co.kr                  | <b>全羅日報</b><br>https://www.jeollailbo.com    | <b>전북도민일보</b><br>https://www.domin.co.kr  | <b>全北日報</b><br>https://www.jjan.kr                |
| <b>제주일보</b><br>https://www.jejunews.com                | <b>중도일보</b><br>https://www.joongdo.co.kr     | <b>중부매일</b><br>https://www.jbnews.com     | <b>중부일보</b><br>https://www.joongboo.com           |
| <b>충청투데이</b><br>https://www.cctoday.co.kr              |  |   |   |



# 나의 활동 메모

-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한 문 장 소 감	확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 기후변화



100년 만의 폭설로 도시가 눈 속에 갇혔습니다.’, ‘올겨울 눈과 얼음이 없는 알프스 스키장은 사상 처음 휴장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기후변화와 위기 징후들을 접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고,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함이 생겼습니다. 과연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다음은 배우 조○○씨가 새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2주 전에 현지 상황이 어땠는지 답사를 다녀왔을 때 날씨가 상당히 좋았더라. 2주 만에 날씨가 급변한 것은 제작진의 의도였나 싶다. 그 정도로 지구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몸소 체험을 했고, 예능이기에 즐긴다기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다. 마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 몸소 체험하며 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봤고, 고민을 해볼 체험을 안겨준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기후변화의 뜻을 정리해 보세요.

밑줄 친 ‘기후변화의 심각함’이 갖는 의미를 써보세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활동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 활동 순서**
1.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다.
  2. 기후변화가 언급된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3. 신문 기사에서 소개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기사내용 정리공간>

여러분은 ‘기후변화와 위기’를 주제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입니다. 다음 예능 프로그램 예시를 참고하여 기획 의도에 맞게 포맷을 선택하고, 첫 회(1회) 스크립트를 구성해 보세요.

예능 프로그램 포맷

포맷 형태	프로그램 예시
리얼 버라이어티	1박 2일, 런닝맨, 놀면 뭐하니, 신서유기 등
관찰 예능	나 혼자 산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1호가 될 순 없어 등
음악 예능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보이스트롯 등
요리 예능	골목식당, 신상출시 편스토랑, 맛남의 광장 등
여행 예능	삼시세끼,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체육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내일은 야구왕, 국대는 국대다 등
추리/두뇌/퀴즈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 도레미 마켓, 더 지니어스 등

프로그램명	
포맷 형태	
기획 의도	
프로그램 소개	
첫 회(1회) 스크립트 개요 스토리(프로그램 내용) 촬영 장소/촬영 기간 출연자/의상/음악 등	



## 2 기후변화와 국가 위기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됩니다. 국가를 이루는 국민과 국민이 살아가는 터전인 영토, 그리고 대내적인 힘과 대외적인 독립성을 이루는 주권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영토가 사라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영토의 상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가 위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과제를 수행해 보세요.

※출처 : 동아일보 2021년 11월 11일 인터넷 기사 발췌

### “( A )로 가라앉고 있어” 투발루 외무장관, 무릎까지 잠긴 채 기후 위기 연설



(5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 해안에서 물속에 들어가 기후 위기 대응 촉구 연설을 하는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

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기후 이동성(climate mobility)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대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 이동성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이동을 의미한다.

1933년 발효된 몬테비데오 조약에 따르면 항구적인 국민, 경계가 명확한 영토, 정부, 국제관계를 수행할 역량을 갖춰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투발루를 비롯해 마셜제도, 키리바시, 몰디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로 국가의 지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인구 1만2000여 명의 투발루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남태평양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해발고도가 약 2~3m밖에 안 되는 데다 매년 0.5cm씩 물이 차오르고 있어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유지되면 50년 이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페 장관이 연설을 한 지역도 한때 육지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1/110199542/2>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은 지난 5일 푸나푸티 해안에서 물속에 들어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페 장관은 수중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투발루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

- 신문 기사를 읽고,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 )
- 밑줄 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유를 (가) 문단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세요.

- ‘기후 이동성’의 개념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변화를 써보세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은 공동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활동 요령>을 참고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연설문을 작성해 보세요.

#### <활동 요령>

- 연설 대상을 선정하고, 연설문의 제목을 정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기후변화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를 촉구한다.

(제목 적는 공간)

연설문 작성 공간

날짜  
성명

(서명)



# 3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기후변화의 비극은 식량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곡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예요. 기후변화가 초래할 식량 위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존 위기에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2022년 7월 19일 14면 기사 일부 발췌

## 기상이변에 전세계 농지 쑥대밭... UN “공동대응 없이는 집단자살”



미국 ASP는 21일 유럽을 가리키는 18일 전 시시(21)에 비가 내린 후 유럽은 파리 에펠탑 인근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시민들이 물줄기를 즐기고 있다. (출처: ASP)

ASP는 “중국은 자연재해로 3000만ac(에이커) 농작물이 피해를 봤고, 생산량도 평년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두와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농경지의 28%가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다자 공동체로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점”이라며 “우리는 공동대응이나 집단자살이나 사이에 놓였다”고 말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도 “기후 위기는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대한 안보”라며 “우리에게는 글로벌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시간이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식량난이 인 가운데,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의 피해가 커지면서 식량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까지 떨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량이 줄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밀 재배 지역인 캔자스 주가 라니냐로 인한 폭염과 가뭄을 겪고 있다. 주정부는 올해 밀밭 1에이커(ac)당 수확량이 1006kg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1ac당 1415kg)보다 30% 감소한 수치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평년 같으면 허벅지 높이까지 자랐어야 할 밀이 발목 위로 겨우 올라왔다”며 “몇 달간 이어진 가뭄으로 캔자스 서부 밀밭 상당수가 황무지가 됐다”고 했다. 미 농무부는 캔자스주의 밀 41%가 매우 열악하거나 나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때 상황(14%)보다 3배나 많다. 밀 품질 위원회(WQC)는 캔자스 밀밭 10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수확을 못하고 버려질 것으로 봤다. 캔자스주와 다른 밀 재배지 오클라호마주 등을 합하면 올해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보다 7~8% 적을 거란 예상도 나온다. 가뭄 정보를 제공하는드라우트모니터(drought monitor)에 따르면 이들 중부 지역을 포함한 남부와 서부에 가뭄이 심한 상태다.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는 유럽도 작물 수확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은 올해 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470만t(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밀 생산지역인 프랑스 남동부에는 지난 3~5월 극심한 가뭄이 닥쳤고 6월엔 폭우가 내렸다. 이탈리아도 40도에 가까운 이상 고온이 이어지면서 토마토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가뭄관측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포강 수위는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뭄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작물 생산량이 11% 감소할 거란 기존 추정치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던 예측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뭄 보고서에 따르면 EU 영토 46%가 주의보, 11%가 경보 수준의 가뭄에 노출돼있다. 기온이 45도를 넘어선 스페인 타바라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겹치는 바람에 화재가 일어나 수확 직전의 밀밭이 모두 탔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다. 미 싱크탱크 미국안보프로젝트(ASP)에 따르면 인도는 올 봄 강우량이 평년보다 71% 감소했고,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찾아왔다. 인도 최대 곡창지대인 펀자브 지역 밀 수확량은 15% 감소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밀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기사에서 모르는 용어에 밑줄을 긋고, 아래 표에 용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용어	의미

신문 기사에서 국가별 식량 작물의 수확량 변화를 찾아 아래 표에 정리해 보세요.

〈 식량 작물 주요 생산국 수확량 변화 〉

국가				
종류				
생산량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제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활동 요령>을 참고하여 앞서 제작한 도표의 데이터를 활용해 주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주제도'란 인구, 경제, 산업 등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지도로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남)

<활동 요령>

1. < A >에 지도(주제도)의 제목을 넣는다.
2. 데이터 정보를 원, 막대그래프, 명도 등으로 지도에 표시한다.
3. B 에 지도의 내용을 설명한다.

<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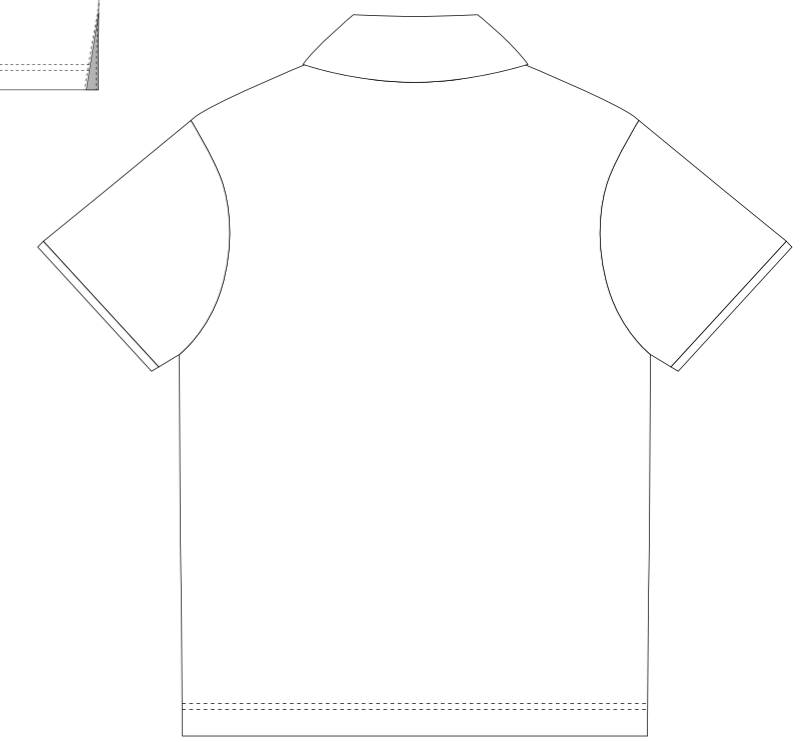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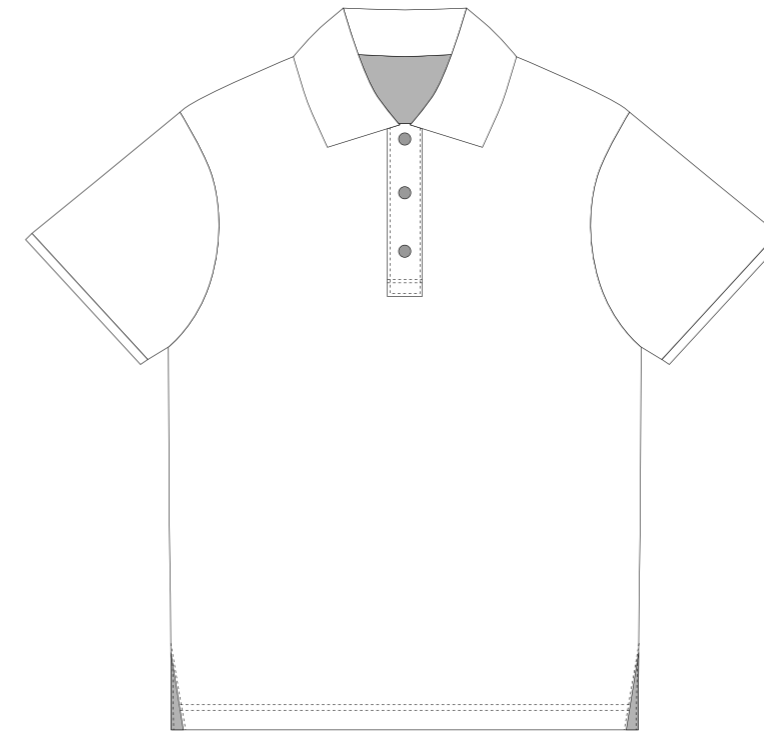


B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위기 대응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환경 티셔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환경 티셔츠의 앞면과 뒷면을 디자인해 보세요.

<환경 티셔츠에 포함할 요소>

1. (필수)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위기 상황을 알리는 사진이나 그림
  2. (필수)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을 호소하는 문구
  3. (선택)협찬, 디자이너 사인, 브랜드명, 단체명 등
- \* 3번 '선택' 사항은 제작자의 개성과 판단에 따라 티셔츠에 포함하지 않거나 새로운 요소로 대체할 수 있음.







# 4 극지방의 사라지는 얼음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현재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극 빙하'의 녹는 속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파괴적이어서 과학자들은 해수면 상승을 부가시킬 요인으로 빙하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빙하의 유실 속도를 늦추고,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 '남극 빙하'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 신문 기사에서 빙하가 녹는 원인을 찾아 밑줄을 긋고 정리해 보세요.

📌 빙하의 면적이 크게 줄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써보세요.

📌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소감이나 느낀 점을 아래 댓글 창에 작성해 보세요.

✔ 댓글 쓰기

📌 '빙하와 생명'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활동 순서>를 참고하여 사진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세요.

💡 활동 순서

1. 포스터 전면에 배치할 사진을 신문에서 스크랩한다.(2장 이상)
2. 포스터 제작 란에 스크랩한 사진을 붙인다.(사진 배치는 자유)
3. 포스터에 사진전의 명칭, 장소, 전시 기간, 작가 이름 등을 넣는다.
4. 사진전의 취지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배치한다.



# 5 기록적인 산불



2019년 9월에 발생하여 6개월간 꺼지지 않았던 호주 산불을 기억하나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해마다 신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대형 산불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타오르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일까요?

🔍 호주 산불을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 위 기사를 참고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구분	내용	관련 사진(피해사진, 호주 산불 발생지도 등)
발생 기간		
피해 규모	피해 면적	
	인명 피해	
	동물 피해	
원인		

🔍 검색 사이트에 '기록적인 산불'을 입력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의 정보를 정리해 보세요.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산불 발생 지역		산불 발생 지역	
산발 발생 일시		산발 발생 일시	
피해 규모		피해 규모	
원인		원인	
관련 사진		관련 사진	

🔍 다음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되먹임 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출처 : 중앙일보 2022년 3월 19일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 산불 꺼져도 긴 후유증... 사람 건강 해치고 성층권 오존층도 파괴

산불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네덜란드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2019~2020년 호주 산불 당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7억1500만 톤에 이릅니다. 한국의 2018년 한 해 총배출량 7억 2760만 톤과 맞먹는 양입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8월에만 전 세계 숲이 타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25억 톤이 넘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등 고위도 지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그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이 됩니다. 산불에서 발생한 먼지와 그을음이 고산 지대와 극지방 빙하에 내리면 태양 빛의 반사율을 떨어뜨리고, 빙하가 더 쉽게 녹아내리게 합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7~9월 북극 바다를 돌면서 갈색 탄소가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북극 지역에서 갈색 탄소는 블랙 카본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30%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갈색 탄소는 특히 산불이 잦은 여름철에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 북극의 온난화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산불 발생을 증가시키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혹은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668#home>

구분	내용	결론
기후변화가 산불에 미친 영향		기후변화와 산불의 관계를 '되먹임 효과'를 이용하여 한 편의 짧은 글로 정리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 6 목마른 대지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그곳의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물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고통받는 곳은 아프리카의 뿔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뿔: 지도상의 모양 때문에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로 불리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북동부 10개국을 말함.

아프리카의 뿔에서 발생한 가뭄을 다룬 기사를 찾아서 스크랩하고 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구분	내용
가뭄 지역(나라)	
가뭄 피해	
가뭄 원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	

다음은 가뭄을 표시한 세계 지도입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요약해 보세요.

### 세계 가뭄 주요 현황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동아프리카**

- 40여년만에 최악의 가뭄
- 전례없는 건조한 우기

**중국**

**미국**

기후변화로 발생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구소나 단체들을 설립해 보세요

이름 :

하는 일 :

이름 :

하는 일 :

이름 :

하는 일 :

이름 :

하는 일 :

이름 :

하는 일 :



# 7 불타는 물의 도시, 판타날 습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남아메리카에는 한반도 크기의 습지가 있어요. 이를 '판타날 습지'라고 부릅니다. 판타날 습지는 악어와 재규어의 서식지로 유명한데, 이들 말고도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곳에 농장을 만들어 많은 소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농장을 넓혀 소를 더 많이 기르기 위해 일부러 들불을 내고 있고, 기후변화로 가뭄이 들어 습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습지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구글에 '판타날 습지'를 검색하여 다음 표를 따라 판타날을 소개해 보세요.

판타날 습지란?	판타날 습지 위치	판타날 습지가 중요한 이유

📌 판타날 습지를 다룬 기사를 찾아 스크랩해 보세요. (#불타는 물의 도시 판타날)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 스크랩한 뉴스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판타날의 산불로 발생한 피해	판타날에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을 말합니다.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많은 나라들이 모여 협약을 맺고 습지를 보호하려는 이유를 찾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세요.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기후조절	수질 정화

📌 다음 그래프를 보고 습지 훼손의 원인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고자 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만들고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참고할 통계 자료	기사 제목
'16~'20년 내륙습지 조사결과, '15년 기준 습지(2,499개) 대비 174개 소실, 이 중 20%(34개)가 골프장, 도로 등 개발이 소실 요인 ※ (자연적 천이) 15%(26개), (인위적 요인) 경작 65%(114개), 골프장, 도로 등 개발 20%(34개) 자료: 환경부	
	내용 요약

**165개 훼손습지 훼손유형**

면적 감소 91, 소실 74, 총 165

**소실 습지 74곳 소실 원인**

분류	개소(개)	비율(%)	비고
자연적 원인			
육지화	13	17.6	산림 및 육상식생으로 천이
초지	4	5.4	초지 식생으로 천이
인위적 원인			
논, 밭, 과수원	29	39.2	논·밭·과수원으로 활용
빈 땅으로 변함	2	2.7	매립 후 방치
시설 입지	20	27.0	산업단지·택지·골프장 등 조성
댐 건설	1	1.4	수위 상승에 따른 매몰
경작 및 개발	5	6.7	경작 및 택지조성 복합이용
합계	74	100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2023년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It'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이라고 합니다. 습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은 홍보 동영상의 마중 그림(섬네일)을 만들어 보세요.



# 8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일곱 가지 목표 중 열세 번째 목표가 기후 위기 극복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여성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평등을 가속화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 위기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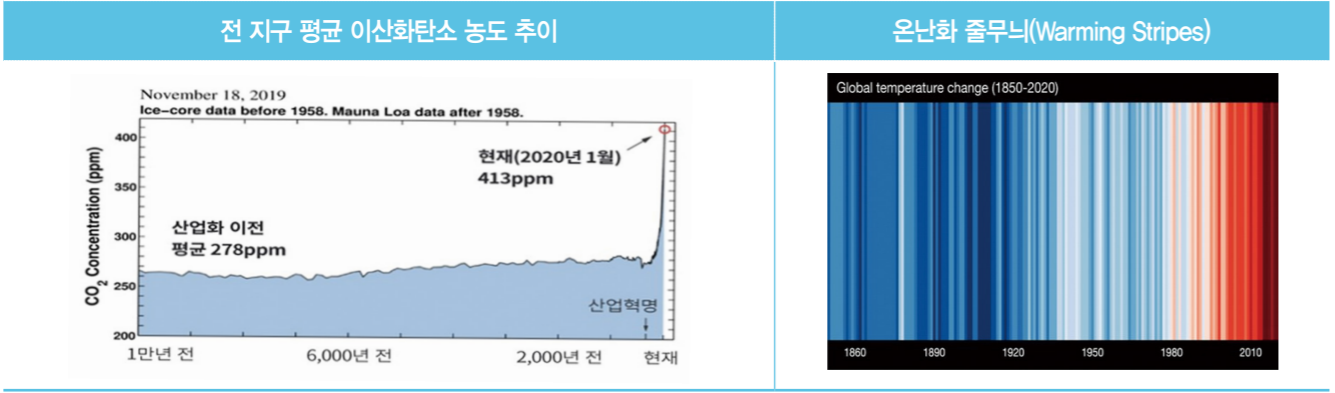
다음은 유네스코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일곱 가지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 중에서 표에 제시한 과제의 상세 목표를 조사해 보세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지구촌 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과제	상세 목표
기후변화와 대응	
기아 종식	
생태계 보존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온난화 줄무늬(Warming Stripes)' 그림입니다.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왼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다음 기사를 요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착한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출처 : 경향신문 2021년 10월 21일 26면 기사 일부 발췌

## 세상 바꾸는 가치 소비

소비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소비형태인 '가치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가격이 좀 비싸거나 품질이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적극·목적의식적 소비 행동이다. 이런 가치 소비의 바탕에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신념을 표출하는 이른바 '미닝아웃(Meaning out) 확산'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소비를 유발하는 가치는 다양하다. 개인적 취향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과 인권, 복지, 나눔,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공익적인 가치가 대부분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가치들이 촉발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가치를 중시하면 생산자는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기 마련이다.

### 기사 요약

### 자신이 세운 착한 소비계획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을 다룬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 기사의 핵심내용 요약

내가 경영자라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울 것인지 써보세요.

내가 경영자라면..



# 9 재난은 남의 일? 재난 복구에 전 세계 손잡아요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최근 폭풍·호우·대설·홍수·해일·지진 등 이상적인 자연 현상에서 비롯된 재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남의 일, 다른 나라의 일이기만 할까요?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아래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재난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제목들입니다. 각각의 제목에 해당하는 기사를 찾아보고, 제목 밑에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세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유명인들

카카오, 100만 이용자와 튀르키예·시리아 기부금 조성 캠페인

시민들 마음 담은 튀르키예 구호 물품

전 세계 기발자 모여 생존자 구조 앱 만들기도

신문에는 재난 사고를 당한 이들을 돕는 단체 이야기도 많이 실립니다. 모금, 구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국내외 단체를 찾아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단체 이름	캐치 프레이즈	재난 관련 주요 구호 활동	최근 기사 스크랩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 10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친환경 실천!



재난 구호 관련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긴급 구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을 통해 '작지만 큰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신문을 보면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소개됩니다. '일상 속 친환경 실천'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아래 분야별 실천방법 및 실천이 필요한 이유를 써보세요.

분야	실천 방법	이런 실천이 필요한 이유
소비	예) 꼭 필요한 옷만 산다.	예) 옷을 덜 사게 되면 의류 폐기물이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먹을거리		
에너지		
교통		

앞에 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네 컷의 '시사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	--	--	--

일상 속 '친환경 멘토' 역할을 하는 인물 인터뷰를 읽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 보세요.

※출처 : 머니투데이 2022년 7월 26일 인터넷 기사 발췌

## “야 너두 쓰레기 ‘줍깅’ 할 수 있어” 황 대리의 ‘훈훈한’ 이중생활

“본캐와 부캐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네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쌓이니까...”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 ‘와이퍼스’를 운영하는 황승용씨(36세)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짚터뷰’와 첫 인사를 나누는 뒤 소파에 앉으며 이같이 말했다. 멋쩍게 미소지으면서다.

플로깅(혹은 줍깅)은 조깅을 하듯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 황씨의 본캐는 한 회사의 ‘대리’이고, 부캐는 ‘와이퍼스’의 대표이다.

(중략)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도 환경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 관련 사단법인 이사장이 쓰레기를 줍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직장인이 환경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좀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그는 공모전 때문에 환경 관련 콘텐츠를 접하다 플로깅을 처음 시작했다. 2020년 3월 와이퍼스를 만들었다. 조금 더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저는 플로깅이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고요, 살도 빠졌죠.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저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구도 깨끗해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환경이랑 전혀 관련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한 직장인이 플로깅 단체 의장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허들을 좀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며 계속 하고 싶어요.”

황승용씨의 이런 바람은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 와이퍼스 멤버는 현재 580명 정도로 늘어났다. 부산지부가 아예 100명 규모로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와이퍼스 외에도 플로깅 커뮤니티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플로깅은 이제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가장 자주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가 됐다.

그가 플로깅 활동에 대해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는 것. 다른 또 하나는 결국에는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중략) ‘플로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황씨는 “조깅을 하거나 걸을 때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하나씩 주워가자는 취지다. 정말로 뛰면서 쓰레기를 많이 주워야 한다는 게 아니다”며 “그냥 본인이 자주 가는 산책길이나 사랑하는 공간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주워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경민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514401211305>

인터뷰이의 말을 통해 ‘플로깅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여러분이 ‘와이퍼스’ 홍보팀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이퍼스 멤버를 모집하는 공지를 간략히 써보세요.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 문자(이모지) 등도 활용해 보세요.

제목	
내용	



# 11 기업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고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 요즘 기업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ESG경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고, ESG 경영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9월 4일 인터넷 기사 발췌

## “ESG 앞장선 기업 제품 사겠다”...소비자 76%가 ‘엄지척’

매일경제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CFI · Corporate Favorite Index)는 2년 전 52.8에서 55.5점으로 올랐다. CFI는 기업 호감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매우 호감 100점, 호감 75점, 보통 50점, 비호감 25점, 매우 비호감 0점이다.

(중략)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업의 ESG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SG 경영이 기업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질문에 75.9%가 그렇다고 응답했**

**다. 매우 긍정 18.8%, 긍정 57.1%였다. 어떤 ESG 활동이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는 기후변화 대응(31.2%)에 이어 윤리·준법경영(21.0%), 산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16.6%), 인권경영 확대(15.7%)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ESG 중 기업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환경(50.9%) △ 사회적 책임(32.9%) △투명경영(16.2%)을 꼽았다.

특히 MZ세대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하며, '미닝아웃(Meaning Out)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닝아웃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ESG 선도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ESG경영과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70.3%는 ESG경영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략)

정승환 재계 · ESG전문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10444862>

📌 ESG경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E	S	G
각 단어의 스펠링			
각 단어의 뜻			
ESG경영의 뜻			

📌 기사에 나온 두 어휘의 뜻을 찾아 써보세요.

• 사회적 책임 : .....

• 미닝아웃 : .....

📌 기사 중 밑줄 친 부분을 각각 2개의 그래프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프에 '제목'도 붙여보세요.

📌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늘리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ESG경영 사례를 찾아보고, 스크랩해 보세요.

📌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 )일보(신문) ( )년 ( )월 ( )일 ( )시 ( )분

📌 스크랩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

.....

📌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ESG경영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는지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기업명, 분야	
ESG경영 아이디어	





# 1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국제사회 어깨가 무거워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다각적인 노력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기업, 국가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선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도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아래 칼럼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펼친 논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세요.

※출처 : 대전일보 2023년 2월 20일 18면 기사 일부 발췌

## 기후변화?

(중략)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규명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1차부터 6차까지 '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기후변화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러나 1990년 발표된 1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영향을 확신하지 못했다가 2차 보고서에서야 인간의 영향이 기후변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됐

으며, 최근 6차 보고서에서야 마침내 기후변화에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고 밝히기에 이른다. 또 다른 이슈인 기후변화가 실제로 있는가에 대해서도 5차 보고서를 통해서 관측된 온난화가 명백히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중략)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IPCC 활동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다.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이후 목표치를 강화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략)

이종진 K-water 인재개발원 교수

칼럼에서 언급된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협약 및 협약의 주요 내용을 써보세요.

협약명	주요 내용

아래 사설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핵심 화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출처 : 경향신문 2022년 11월 21일 27면 기사 일부 발췌

## 기후재난 피해 보상 합의한 COP27, 한국도 제 몫 다하길

기후재난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조성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샤름엘셰이크 실행계획'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폐막일을 이틀이나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지구촌이 기후변화 공동대응의 이정표를 놓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0년간 개도국들이 요구해온 '기후정의'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손실과 피해' 보상은 전 세계 190여개국이 참석한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핵심 화두였다. 탄소 누적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선진국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한 지구 기온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막심한 곳은 탄소배출 책임이

적은 개도국들이다.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0.4%에 불과한 파키스탄에서 지난해를 대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침수되고 1700명이 숨진 게 대표적이다. 동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야생동물은 물론 수백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했고, 태평양 섬나라들은 수몰을 걱정하는 지 오래다. 이번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막심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며 '기후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건은 기금운용 방식이다. 누가 얼마나 재원을 부담할지,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에서 보상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피해는 2030년 7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미국·유럽연합·중국·인도를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모두 후속 협상에서 무거운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해 기존 석탄 외에 석유·천연가스도 줄이자는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금 조성은 '거대한 상처 위에 반창고 붙이는' 격이 될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인 한국은 합의 취지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한 국제평가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정책 목표와 이행수준은 2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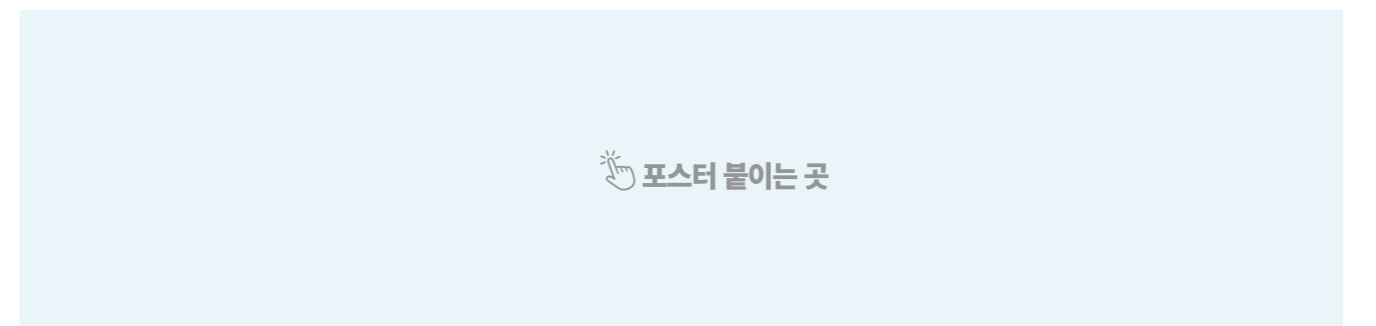
'기후 정의'란 무엇인지 써보세요.

사설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주장: \_\_\_\_\_

근거: \_\_\_\_\_

위 사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긴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보세요.



# VISA

##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3 '기후변화와 재난안전교육'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3 '기후변화와 재난안전교육'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MEMO 

MEMO 

발행일 | 2023년 6월 1일

지은이 | 홍근태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최지성 동북중학교 교사  
김청연 전 한겨레 매거진 랩팀 기자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정우현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http://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희망브리지  
Korea Press Foundation 전국대학구조협회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